

“선무 치료예술로 대중화”

‘선무기법...’ 펴낸 이선옥씨

미국·유럽에 선무 보급 ‘색즉시공 2001’ 3월 공연

“선무기법은 동양 선(禪)과 서양 예술심리치료의 만남입니다. 육체적 병의 원인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실을 감안할 때, 동작을 통한 명상법을 사용하는 선무기법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기여할 건강 무용의 새로운 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인천 용화사 조실 송담스님께 ‘이웃포’ 화두를 받았고, 미국에서 송산 스님과 만남을 통해 직접 선법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뉴욕선무단을 이끌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선무라는 새로운 현대무용의 분야를 개척한 특

특한 이력의 소유자, 선무가 이선옥씨.

그런 그가 선과 무용을 결합한 선무 치료예술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나선다.

현재 상명대 무용과 겸임교수이자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Asia-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씨는 최근 <선무기법과 선무치료예술> (집문당)을 발간하고, 수행 방편이자 무대예술로서의 선무에 이어 치료 예술로서의 선무를 대중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씨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오는 3월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 백상한의 원(원장 배오성)에 문을 여는 선무치료예술센터의 소장으로서 부임해, 직접 선무치료예술로 임상에 나선다. 주 3회 선무치료예술센터에서 최첨단자료를 비롯해,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선무와 그림, 음악 등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게 된다.

“선무치료법은 단순한 동작들로 이뤄지는데, 단련부위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동시에 수인법과 이휘도 등을 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연습과정은 동작동작의 연결에 완전한 정신집중을 요하게 되고, 완벽한 정신통일이 이뤄져 그 과정 자체가 치료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씨는 서양예술가들과 심리치료



선무가 이선옥 씨는 선과 무용을 결합한 선무 치료예술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나선다.

사, 정신과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명상기법, 요가 등을 도입해 새로운 장르의 기법을 창출해 내 새로운 예술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선무의 원리에 의학을 접목시켜 국제적인 한 분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대 창작무용으로서의 선

무의 진면모를 공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APPAN 활동을 통해 세계인들과의 교류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같은 활동의 하나로 오는 3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 실내극장에서 ‘색즉시공 2001’ 선무 공연도 갖는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2000년은 프랑스의 행동주의 작가 생 텍쥐페리(1900-1944)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의 고향인 프랑스 리옹 시가 공항 이름을 ‘생 텍쥐페리 공항’으로 새롭게 명명하는 등 그를 기리는 행사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에서도 모 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추모 학술회가 열렸다. 나도 그 자리에 나가 ‘어린왕자’와 화엄경의 선재동자 이야기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 텍쥐페리는 과연 어떤 체험을 했기에 ‘어린왕자’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을까? 먼저 그의 직업이 당시로는 최첨단이었던 비행기 조종사였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비행기를 몰던 1930년대에는 지금 같은 전자항법 장치가 있는 대형비행기가 없었다. 비행사가 시계비행을 해야 하는 경비행기만 있던 시절, 그는 특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그가 다닌 하늘길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거나,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난코스였다. 그 와중에 사하라 사막이나 안데스 산산에 불시착하여 사경을 헤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깜깜한 밤하늘, 번잡한 인간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엽편주에 몸을 싣고 무한한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별빛의 세례를 받으며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태(胎) 속 같은 4차원의 조종실에 홀로 있게 되면 인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생 텍쥐페리는 최신 과학기술이 집약된 비행기의 조종간을 잡고, 처음에는 과거 어떤 인간도 다닌 적이 없는 하늘에 홀로 떠서 자신이 인간 진화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를 엄습한 것은 인간 존재의 왜소함과 우주의 광활함이었다.

생 텍쥐페리가 망망한 우주공간에 외롭게 떠있을 때 그에 게 많은 건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왕자였다. 어린왕자는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의 본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이미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어린왕자는 바로 그의 마음의 의인화였고, 본래면목의 현현이었던 것이다. 그가 발하늘이라는 오지에서 맞닥뜨린 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핵심인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화가 지팡생이었던 그가 나중에 직접 그린 어린왕자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죽기 일년 전 발표한 동화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은 것은 그 주제가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겨냥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물과 같다. 시냇물이나 호수물이나 모든 물은 원래 맑았다. 아무리 흐린 물이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 이물질을 가라앉히면 본래의 맑은 성질로 되돌아간다. ‘물을 마시면서 그 근원을 생각한다(飲水思源)’는 옛말이 있다. 어디 물을 마실 순간 만이겠는가? 우리는 대사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맑은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이 욕망은 우리가 본래 맑았다는 증거이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본질은 맑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고 세속에 물들어가도, 우리 모두는 변함 없는 ‘어린왕자’이다.

■문학평론가



상조적이고 개방적인 건축구조와 절제된 미, 소박함 등으로 탈권위적 건축물의 한 전형을 보여준 정토사 무량수전.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올해의 건축물’ 대상

한국 건축가협회 주관

종교적 권위나 관습에 기대기를 포기하고, 절제된 선과 소박한 문양, 색감으로 현대적 사원양식의 모범을 선보인 전남 담양군 정토사 무량수전이 한국건축가협회 주관하는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돼 22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선 건축가로 알려진 이도건축 소장 김개천 씨가 설계 시공을 맡아, 지난 99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전통 한옥 형태의 기존 사찰 건물 형식에서 탈피, 콘크리트 직선

구조와 법당 벽체에 설치된 140개의 창문을 통한 개방효과, 외부 단형을 생략한 절제미 등 독창성과 예술성, 철학적 요소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본심에 오른 50여 건축물들 중 제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지 해공스님은 “불교가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건축물부터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도건축 김소장과 많은 의견을 나누며, 무량수전 불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건립할 무량암과 문화관도 똑똑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7개 프로그램 신설

- 경전강좌
- 철학강의
- 드라마
- 만화
- 법문
- 건강체조

경쟁위를 맞은 이후 재방송이 많았던 불교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섰다. 불교TV는 3월 5일부터 경전강좌, 철학강의, 드라마 및 만화, 법문, 건강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해 방송한다.

동국대 철학과 강사 김종욱씨가 마이크를 잡은 ‘불교와 철학과의 만남’ (수, 낮 12시 25분-오후 1시 25분)은 서양의 전통 및 현대철학, 중국의 전통사상 등과 불교철학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설명해주는 강의 형식으로 꾸며진다.

진속스님(여수 석현사 주지)이 진행하는 ‘금강경으로 건너는 21세기’ (토, 오전 8시 50분-오후 9시 20분)는 금강경 사상을 현대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 승속을 초월한 선지식들이 출연해 시



‘불교와 철학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김종욱씨가 불교사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진은 주제로 법문하는 ‘행기토론 말씀’ (목-토, 오후 3시 55분-오후 4시)과 매주 교제에서 일어나는 행사소식, 미담사례, 화제의 인물 등을 소개해주는 ‘bn 열린마당’ (토, 오후 5시 45분-오후 6시 25분)도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 봐야 할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금니사경 회향전

27일부터, 예술의 전당

지리산 범종사 서암에서 참선수행 을 하며, 하루 3-4시간씩 사경을 헤 은 원웅스님의 ‘화엄경 금니 사경 회향전’이 27일-3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화엄경>은 스님이 지난 85년부터 시작한 15년간 작업해 온 것으로 <화엄경> 금니사경 80권을 비롯해 <화엄경> 사경 80권,



원웅스님

<반야심경> 금니사경, <금강경> 10폭 병풍 금니 등 180여 점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전시를 가진 바 있는 스님은 오랜 동안 해온 사경 작업을 회향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02580-1511

손연철 팔상도전

동국대 손연철교수의 ‘팔상도 전’이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린다.

손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채색기법과 동유화 기법을 적절히 사용해 ‘출가’ ‘정각’ ‘전법’ ‘열반’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찬란한 금박에 오려지고 바랜 듯 한 질감, 거친 필치, 긴장감 있는 구성 방식은 전통불화와 현대회화의 만남이 아니면 불가능한 미감을 표출한다. 02725-1020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였습니다

한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시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궁단등(비단등 실크등)

(보라)

(노랑)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차갈이등)

(오색)

(만월장등)

안갯님 캐즈메어 (택이 122168호) 필각등 실용신인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디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